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즉 결코 버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꼼꼼이, 또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임금처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연(부모 형제자매의 인연)이란 정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한 19,25-27)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혈연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하겠지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 혈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신연(信緣), 즉 믿음의 연인데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루카 9,25)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라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가 버려야 할 소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오늘 제2독서인 필레몬서(9-17)를 묵상하게 됩니다. 1장으로만 되어있는 이 서간의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현재 옥중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그의 주인인 필레몬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정중히,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로 보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즉 나의 욕심을 버리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역지사지의 마음!

제1독서인 지혜서(9,13-18)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야 할 것이고, 내가 버려야 할 소유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욕심과 역지사지) 그것을 또한 버릴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황봉철 베드로 신부 | 창녕본당 주임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본 기 도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굶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제 1 독 서 지혜 9,13-18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 서 필레 9-10,12-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 음 루카 14,25-33

영 성 체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부산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 K 선생님께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봄이었다. 한국 대중문화 속 여성 혐오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10대 여성들과 만날 기회는 처음이었다. 선생님은 내 책을 읽고 학생들이 발표한 글이나 질문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내 주셨다. 빼곡하게 써 붙인 포스트잇을 차례로 읽어 나가던 중, 질문 하나가 가슴을 쿵 쳤다.

“이 책을 쓰면서 우울하거나 슬픈 마음에 도중에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나의) 슬픔을 읽어 낸 것은 열다섯 살의 다른 여성이었다. 그 질문을 만난 것만으로도 부산행이 기다려졌다. - 최지은, 질문하기와 응원받기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 교회법 제207조

그 삶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들입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제일 큰 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늘 역사적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버티고 일으켜 준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신 어린양처럼, 우리들의 타함을 더 많이 짊어지고, 그러나 짐이 아닌 십자가로 여기며 기쁨을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기뻐야 교회가 기쁘고, 이들이 풍요로워야 교회가 풍요롭습니다. 이들의 삶이, 교회의 생활과 성덕 자체입니다.

수도자의 삶은, 수도자 개인뿐 아니라 하느님과 합일하고자 하는 교회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질문을 대표합니다. 삶으로 질문을 던지고, 삶으로 길을 찾아갑니다. 선구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봉과 하트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던 메시지를 나는 가끔 떠올린다. 내가 받은 최고의 응원이었다.

- 최지은, 같은 글

가르멜의 열린마당: 명사 초청 특강

신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명사들과 가르멜 영성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한 영성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강연입니다.(당일 선착순 290명)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시간: 13:30~16:10(강연) 16:30(미사)

9월 27일 금	윤주현 신부(가르멜수도회 관구장) 헤민 스님(뉴욕 불광선원 부주지)	“진리를 향한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여정”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10월 18일 금	김광서 신부(서울 가르멜수도원 부원장) 송봉모 신부(예수회,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가르멜 영성 안에서의 하느님 체험” “성경인물이 권고하는 고통의 태도”
11월 16일 토	박정오 신부(가르멜영성문화센터장) 전영준 신부(서울가톨릭대학교 학장)	“기도생활과 영적 알아차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수덕생활”
12월 20일 금	김영문 신부(마산 가르멜수도원 원장) 김인호 신부(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소화 테레사의 하느님 체험” “건강한 그리도인 되기”

주최: 가르멜 수도회 / 문의: 010·4149·1853(가르멜영성문화센터)

제자: 일곱 가지 모습

캐서린 카할란

‘제자’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규정하는 가장 빈번한 용어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60번 나타난다. ‘제자’는 문자적 의미로 ‘문하생’ 또는 ‘학습자’를 의미하고 고대에는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는 이’, ‘추종하는 이’, ‘배우는 이’를 지칭하였다. ... ‘제자’가 그리스도교 용어로 언제 들어왔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복음서가 적힐 무렵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음은 분명하다.

복음서는 예수 이야기이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인 것만큼,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제자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각 저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자와 제자직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고 독자들에게 제자는 누구인지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예수로부터 제자직에 대해 배운 것을 전달해준 첫 번째 추종자들로부터 탄생하였다.

네 복음서 각각은 특별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명이야기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한다. 당대의 다른 선생들과 비교할 때,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첫 제자 그룹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각 소명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는 한 무리를 불러 자신을 따르도록 한다. 아마도 이 부르심이 요구하는 철저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코는 그 첫 무리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마르 1,17-18) 복음서 저자들은 떠돌아다니는 이 설교가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직업과 집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마도 예수가 나중에 자신을 따르는 길에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히 제자직의 첫 단계는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제자는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따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따르는 이는 따르는 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어떤 이가 되는 것인가?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삶의 방식은 특별한 지향, 태도, 실천을 구체화하는데, 제자를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선교에 연루되게 하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자로 만든다. 다음으로, 제자는 예배자가 되도록 불리어 따르는 이가 된다. 곧 제자는 ‘영과 진리’(요한 4,23)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자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것, 곧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예배하고 증언하는 이가 된다는 것은 이웃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단지 친척이나 친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낯선 이에게도 적에게도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제자는 용서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화해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이웃이 직면하게 되는 온갖 해와 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이가 되는 것은 결코 고립자 또는 홀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제자직의 온갖 측면을 양육하고 지탱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창조와 “하느님 신비의”(1 코린 4,1)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곱 가지 모습(추종자, 예배자, 증거자, 용서하는 이, 이웃, 예언자, 관리자)은 제자가 걷는 삶의 핵심 요소들이다.

편집부 역, Kathleen A. Cahalan,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Ministry, 1장 발췌

주님께 맡기는 소공동체

하동본당 화개구역 유영자 베로니카

하동본당은 1916년 문산본당 소속으로 하동공소가 설립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설립 50년 만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1966년 1월 24일 이억민 신부님께서 초대주임으로 부임하신 후 본당 부속 건물 신축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21일, 당시 교구장이셨던 故 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님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안명옥 주교님을 모시고 본당설립 50주년 행사를 가졌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묵주 알처럼 반짝이는 섬진강변 가로등이 하동성당 화개구역 한 가정을 비추던 2019년 1월 17일 저녁, 주임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가 봉헌되고, 화개구역 소공동체는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였고 그 중에는 오랜 냉담에서 돌아온 세 분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심에 기뻐합니다!'

화개구역은 귀촌, 귀향, 고향지킴이들로 반원이 구성되었고, 지역 특성상 화개장터와 남도대교를 중심으로 광양 다압과 화개면 전체로 형성되어 섬진강을 오가며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두고 주일미사 후 본당에서 할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할지 아직 의논중이지만, 이번 모임은 칠불사 주변 범왕리 탄소 없는 마을 배영애 마리아 자매님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 곳에 살면서도 주일미사, 반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반원 차량 봉사에도 열심이신 마리아 자매님께서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숲속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들이 강에서 만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 또한 소리 없이 흐를 줄 아는 강물의 지혜를 배워가며, 각자의 발걸음이 한 데 모여 하느님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볶음밥?

여러분은 중국집에서 즐겨 드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요리들도 많지만 대부분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나 잡채밥, 짜장밥, 탕수육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주 쓸데없는 너무나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볶음밥이 아니고 볶인 밥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볶음밥은 사람이 밥을 볶았다는 입장인데, 밥 입장에서는 볶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밥을 들들 볶을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볶이는 밥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쓰잘 데기 없는 생각을 하다가 단무지에 식초를 뿌렸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꾼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물에 밥 말아 먹는다.”고 하는 것과 “밥에 물 말아 먹는다.”고 하는 것 중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밥이 주류인가 물이 주류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각이나 입장이 아닌, 밥과 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립 국어원에 찾아보니 “밥을 물에 말아 먹다”가 옳다고 합니다. 밥이 주류인가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밥에”가 아니고 “밥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ㅠㅠ). 괜히 볶인 밥이니 물 말아 먹는다느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로 교구보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용無用한 것조차 따져보는 여유로움을 즐겨 봅니다.(“국에 밥을 말아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비만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한국경제 신문이 말하네요.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을 자제해야겠습니다.)

● 하반기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



|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가 8월 26일 교구청 1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참 행복한 은빛놀이 문화’를 주제로 노인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김종대(가롤로, 예인기획원장) 강사는 웃음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11개 본당과 1개 기관에서 46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

● 교구 군종후원회 회의 ●



| 교구 군종후원회(담당: 이재혁 안드레아 신부, 회장: 김석현 사베리오)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지회장회의를 8월 24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다가오는 군인주일을 위하여 교구 관내 사목하는 7명의 군종사제(해군사관학교성당, 해군교육사성당, 해군성당, 육군충무성당, 토성대성당, 공군비성대성당)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 동정

일사: 9월 9일(월)~10일(화)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내용: 주교 영성 모임



제30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사: 9월 20일(금)14:00~22일(주일)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청년
참가비: 9만 원 (경남 593-22-0355398
제)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청: 9월 11일(수)(참가비 입금순 40명)
문의: 청년성령채신봉사회 myhs.or.kr
010-9113-7062, 010-8864-7067
파견미사 초대 9월 22일(주일) 14:00

교구/본당

성직자 모역 성모

일사: 9월 9일(월)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모역

교구성경공부-예언서

일사: 9월 1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요안나 수녀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성경 배경 이야기-유배와 귀환 시대

일사: 9월 10일(화) 14: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23기 성요셉아버지학교

일사: 9월 21일(토)~22일(주일)
장소: 수정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

일사: 9월 28일(토) 14: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2, 4주(토) 19:30/ 대진성당
거제: 매 2, 4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일사: 9월 9일(월) 19:30
장소: 상남동성당
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강사: 김태형 변호사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9월 기도모임

일사: 9월 16일(월)
성체조배 11:00~11:50
특 강 13:00~13:50(이청준 신부)
미 사 14:00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010-3903-8234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연피정

주제: 메세지 551. "집사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일사: 9월 16일(월) 10:00~16:00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전신자및 회원 미사준비, 점심(김밥 제공)
문의: 회장님 010-9399-5454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신부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감: 9월 22일(주일) 17:00까지
방문, 우편, e-mail(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상시(평일 및 주말)
장소: 고성 천사의 집 / 분야: 용접
문의: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사: 9월 28~29일, 10월 19일~20일,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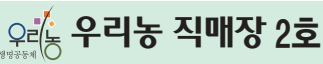
라파엘여행사

- ◆ 10/4,11/4,11/2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89만원)
- ◆ 10/7, 11/7 아테리일주 9일 (279만원)
- ◆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원)
- ◆ 10/14,11/15 다낭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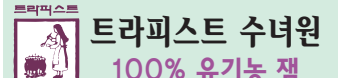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 ▶ 10/12 이스라엘,이탈리아 12일 458만원
- ▶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 ▶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원
- ▶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봉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9월 28일~29일, 10월 26일~27일
 3박4일: 10월 3일~6일, 11월 21일~24일
 8박9일: 10월 9일~17일, 11월 4일~12일
 40일파장: 9월 16일~10월 25일,
 12월 13일~2020년 1월 21일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기 타

부산가톨릭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9월 6일(금) 09:00~10일(화) 18:00
 선발인원: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868명
 전형방법: 학생부교과전형 3개, 학생부종합전형 5개
 문의: 권혁민(루카) 입학사정관 051·510·0705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일일피정

일시: 9월 28일(토) 09:00~18:00
 장소: 대구 구미 도량성당
 피정비: 12,000원 (김밥 제공)
 접수및문의: 010·6254·0057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2박3일 피정

일시: 10월18일(금)~20일(주일)
 11월15일(금)~17일(주일)
 장소: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
 피정비: 18만 원
 접수및문의: 010·6254·0057



교구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세미나

일시: 9월 23일(월)부터 8주간
 (20:00~10:40)
 장소: 월남동성당
 강사: 문봉환 야고보 신부 등 전국 유명강사
 주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문의: 010·5072·5612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진해지역 성령기도회 1일 대피정

일시: 9월 9일(월)10:00~17:3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현남 메히틸다 수녀(쌍가소녀수도회)
 주제: 행복 여행
 파견미사: 16:30분(이동진 안셀모 신부 주례)
 문의: 010·7566·9441



2019년 제기 천주교 농부학교

일시: 10월 5일(토) 09:00~10월 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농부이신 하느님'(요한 15,1)을 따르고 싶은 사람,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봉사자,
 가톨릭농민회원, 공소 회장단, 자연과 사람을 섬기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
 (고등학생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10만 원(1박4식 포함) / 송금계좌 농협 351-1092-0796-93 서정홍
 신청: 9월 23일(월)까지 (교육비를 입금 후, 전화번호와 성함을 011-9556-8239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만일 수강 인원이 50명이 안 될 때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정홍 011·9556·8239
 주최: 천주교마산교구 농어촌복음화위원회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9월 9일(월) 19:00	월남동성당	성령의 인도와 영감	김명선 신부(사도요한, 부산교구)	김명선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9월 9일(월) 19:00	반송성당	성령의 도우심	신재호(분도, 서울교구)	강철현 신부(미카엘)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의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모퉁이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 KOREAN AIR</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월 449 만원</td> </tr> <tr> <td>10월 28일 KOREAN AIR</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월 399 만원</td> </tr> <tr> <td>11월 11일 AEROMEXICO</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일</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월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월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동행의 신비

김연희 크리스티나 • 시인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더구나 사이 좋게 지내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을까?

갑작스러운 지인의 부음을 받거나 젊은 청춘이 몸을 던진 소식에는 살아있음이 무색하다. 고통과 슬픔과 섭리의 신비에 대한 묵상에 젖는다. 언젠가 맞이해야 할 죽음은 나 역시 예외가 아닐 터.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불가항력이다. 신앙인인 우리는 오로지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이 뇌리를 친다. 현대는 개인 만족 시대라며 부러울 것도 없고 주어진 대로 자유롭게 혼자이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 의무와 책임도 훌훌 벗어 던진 현실은 세월이 흐르면 외로움과 우울로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렵다. 보이지 않게 흔들리는 세상일에 믿을 데라고는 하느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공동체와 서로 어울려야 사는 맛이 나는 게 인간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도 서로 어울려서 나비효과 맛을 낸다. 소멸(작은 별치)과 양파, 참기름에 초고추장을 넣어 버무리면 새콤달콤 고소한 환상의 맛이 탄생한다. 그야말로 낭만의 맛이 창조된다고 할까? 여행도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듯 맛있는 만남은 동행이 중요하다. 서로 만나서 상승되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 만남에 배려하는 마음 하나면 동행은 신비다. 사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신이 존재한다.

부침개를 만든다. 잘게 채 썬 감자와 호박, 가지에 파를 넣고 부침가루를 뿌려 소금도 치고 반죽을 한다. 잘되면 먹기 전부터 입맛이 착착 반죽처럼 돌돌 돈다. 부침개를 굽다가 시를 지었다.

곶은 심지 꿈을 버리는 소복단장
열 손가락 깎지 켜다가
구부러졌다가 좁아졌다가
건방진 관절염을 벽에 걸고 파전을 굽는다
아픔도 용서도 고소하게
하얀 긴 목덜미 매력덩어리 자존심
콩나물 노래를 만나 멋진 버섯도 껴안고
미나리 너도 가자 꼬드겼다
흰 가루 물속에 하나 되어 튀굴었다

인격과 인격이 사이 좋게.
사이,
고소한 배반이 동그랗게 태어난다(동행-전문)
사이 좋게
찌지직 직직
각각 개체의 몸부림은
서로의 미움이 죽는다는 비명소리
살과 뼈가 녹는다는 소리
슬픔의 눈물 소리도 숨죽여

서로의 아픔이 조화롭게 잘 녹은 동그란 환상의 맛 동행. 세상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리니 오늘도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기도하며 가야겠다.